국립경찰 창설 61주년을 보내며

—— 한 진 희 (충북경찰청장)

지난 10월 21일은 제61주년 경찰의 날이었다.

또한, 다가올 11월 21일은 제43주년 경우의 날이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다 퇴임한 선배 경우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를 보내며, 경우의 날을 맞이한 경우선배님들께 후배 경찰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다.

제61주년 경찰의 날을 보내면서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맞이한 경찰의 날은 남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 그 소감을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2월 충북의 치안책임자로서 부임한 후 8개월 동안 도민들이 좀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과 노력을 해 왔다. 이런 노력들이 과연 도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경찰의 날을 보내면서 되돌아 보고, 앞으로 우리 충북경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새겨 보고자 한다.

-봉사는 경찰활동의 핵심 가치-

우리경찰의 기본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제 국민은 다스림이나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자 경찰의 영원한 고객이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보살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성껏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봉사의 마음은 경찰활동의 핵심 가치이며, 경찰의 존재목적이다. 국민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제때, 제대로"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국민들에게 진한 향기와 깊은 감명을 선사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경찰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민원인의 마음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우리 경찰은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닌 참다운 봉사기관으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다.

- 인권존중의 인본경찰상 구현 -

그리고 경찰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항상 마음 속에 두고 실천해야 할 덕목 중의 하나는 인권이다. 인권은 우리 경찰이 영원히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확충하였으나, 아직도 경찰업무 특성상 수사과정이나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개연성은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말로만 하는 인권보호가 아닌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의식이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경찰관 개개인에게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권마인드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경찰혁신을 통한 국민만족 실현-

요즘들어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이 한마디에 우리 경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덕목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충북경찰이 국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변해야 하고 더 빨리 변해야 한다. 이런 혁신을 통해 경찰조직은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국정운영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변화만이 영원하다(Change is the only constant)"란 말이 있고, 중국고사에는 『日日新 又日新』이란 말이 있다.

앞으로 충북경찰은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마음가짐과 혁신을 체질화하여 경찰의 변화된 역량이 국민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도민과 함께하는 경찰 실현 -

누구에게나 생일은 즐겁고 의미있는 날이다. 하지만 나이 한살 더 먹는다는 것은 그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조직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충북치안의 책임자로서 61돌을 맞이한 경찰의 날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봉사하는 경찰,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창의적 혁신을 추구하는 경찰을 목표로 도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그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찰을 성원해 주고 협조해 주신 도민 및 경우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경찰활동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고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참다운 경찰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名士칼럼

신 상 우
(경찰 혁신위원장,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독재자의 앞잡이」「민중의 몽둥이」란 달갑지 않은 눈초리가 우리 경찰을 아프게 해왔던 과거가 있었다. 따지고 보면 경찰 자체가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이었고 어쩔 수 없었던 잘못된 통치권 운영에서 빚어졌던 부산물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 사찰을 하고 선거 조작 하는 데까지 개입해야 했던 부끄러운 행적으로 인해 성실한 경찰관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뭔지 모르게 자책감에서 활기를 잃었던 경찰의 모습, 허탈에서 오는 부작용이 우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손실이 심대한 것이었다.

술에 취한 취객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집기를 마구 부수는 일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 아니라 이런 난동자의 입에서 「너희가 민주 경찰이냐」고 되려 고함을 지르는 정경을 보고도 분노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현상이 민주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요, 우리가 누려야 할 안전을 우리 스스로가 해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요즈음 경찰에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 도우미」로 변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부드러운 경찰의 모습을 다듬어 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서나 주택가에서 고성방가를 하면서 방뇨를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취한을 웃으면서 달래는 것이 경찰의 자세여야 하는가. 아니면 단호히, 그리고 가차없이 제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물리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건가.

나는 후자여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에선 난폭 운전의 단속에서 반항을 한다면 가차없이 조치를 한다.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

법규를 위반한 자가 되려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잘못 건드리면 인권 운운하고 단속 경찰을 나무라는 풍조는 없는가.

법은 다수의 안전을 위한 편이어야 한다.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으면, 또 존중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이유로도 다수의 안전은 도모될 수 없다.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 불법 집회를 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법질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번 경찰의 날 행사에 노무현 대통령의 말,

「어떤 경우라도 공권력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치사의 말에 자리를 같이 했던 전 경찰관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는데,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를 되짚어봐야 한다.

「공권력」. 그렇다. 공권력이 존중될 때 경찰은 참다운 국민의 「도우미」로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힘을 주는 길은 국민이 경찰을 「나의 경찰」「우리의 경찰」로 아끼고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아 참다운 경찰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다듬어 가야 할 차례다.

경찰대학의 존립이유와 발전 방향

—— 이 관 희 (경찰대 교수 · 前 한국헌법학회장)

최근 필자는 국회 최규식 의원의 경찰대 폐지법안 제출에 대해 국회 행자위 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필자가 이렇게 경찰대 폐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우선 최근의 상황이 급변하여 2003년부터 3년간 경찰의 직급조정으로 경위직급이 2,174개 늘었고 거기에다 금년부터 경위 자동 근속 승진제가 실시됨으로써 조직 내에서 경위 승진 적체로 인한 경찰대학에 대한 불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위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해 현재 약 10,000명에서 2011년에는 약 27,800명이나 되는 반면 경찰대 출신은 현재 약 2,500명인데 앞으로 퇴직 등을 고려할 때 결코 3,000명이 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순경입직자의 경장·경사 '승진소요 최소년수'를 단축하여 빠르면 6년 만에 경위까지 고속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년제 경찰대학의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이외에도 중국,대만,태국,터키 등)은 각 주마다 4년제 경찰대학이 있고 실무출신, 일반 고등학교출신 약 2:1로 경위임명 되는데, 이들도 대개는 총경(서장)까지 가고, 경무관 이상은 대개 경정으로 입직한 변호사 출신들이다.

일본도 순경 입직자는 총경(서장)까지 승진하고 고시 출신자들이 경위로 입직하여 최고 관리자로 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순경출신이 서장까지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순경출신이 치안총수가 될 가망이 없어서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다"는 최규식 의원 등 폐지론자의 주장은 아주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장 금년도 순경 채용시험에 90% 이상이 대학출신으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병역특혜에 대해서는 2년간 전투경찰대 소대장 등 근무를 하면서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방석복을 입고 소대원에 앞장서서 시위대와 맞서 본 사람이 아니면 결코 말할 수 없는 얘기로써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나라가 지어 준 멍에일 뿐이다.

경찰대학은 경찰의 위상을 높여 놓았고 앞으로도 조직발전을 이끌고 나갈 인재의 보고(寶庫)인데, 유능한 순경의 입직을 위해서 경찰대학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에게 좋은 치안서비스는 훈련 잘된 평범한 경찰관이 하는 것이지 '치안총수를 향해 물불 안 가리고 뛰어가는 유능한 순경'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찰문화를 계급중심의 권위주의문화에서 직무·기능 중심의 전문화 문화로 바꿔야 하지만, 그것도 경찰대 출신들이 뛰어난 기획력과 개혁적인 자세로써 해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인 것이다.

합리적 리더쉽 하에서 하위직급 경찰관들의 사기는 올라갈 것이다.

다만 경찰조직의 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이기 위하여는 경감 이상의 승진구조는 보다 다양한 출신들 간의 치열한 경쟁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경위 직급이 대폭 늘어나고, 일반대학 경찰관련학과도 많아진 만큼 간부후보생도 현재 60명에서 경찰대학과 같이 120명으로 하고, 사시출신자들도 대폭 수용하여 보다 더 자유로운 승진 경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경찰대학 출신이 3,0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경찰대학을 폐지한다고 다른 출신 간부들이 유리해질 것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일반대학 경찰관련학과에서 보는 질시적 시각인데, 분명한 것은 경찰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적·물적 여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학이라 하겠다.

만약에 경찰대학에 대학원이 만들어져서 일단계로 일반대학 출신 20명, 실무 출신 20명 도합 40명 정도의 석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면 경찰이론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고, 세계적인 치안연구 센타를 만들 수 있다.

현재까지 경찰대학 출신 국비 해외유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150여명이 석·박사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것들이 일반대학 경찰관련 학과의 연구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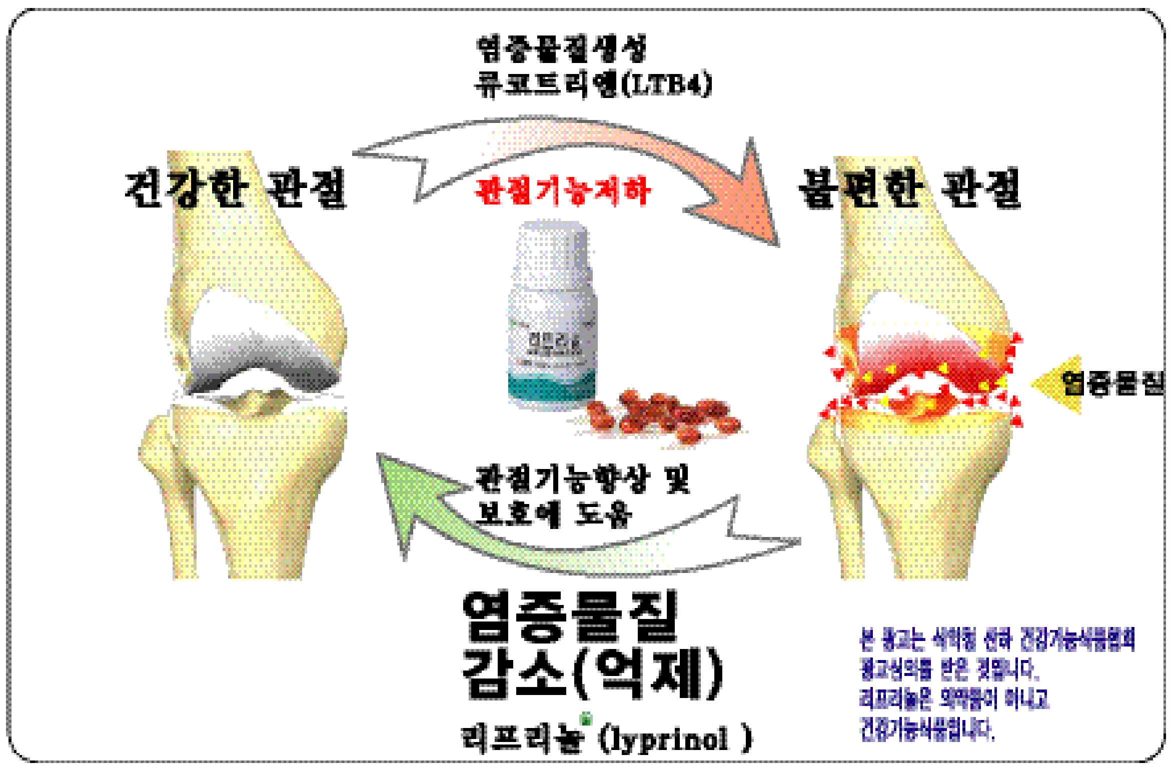
21세기는 이익집단간의 첨예화된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 고도의 법치주의 사회인데 여기에 경찰은 고도의 치안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경찰대학은 앞으로 대학원을 설립하여 세계와 교류하면서 우리 경찰을 삼성 IT, 전자제품 같이 세계 제1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 경찰 중 제1의 우수한 두뇌와 '필생의 경찰공직관'으로 무장된 경찰대학 출신 간부들이 계속 배출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새롭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세계 제1의 경찰로 만드는 첩경이고, 그로써 세계 제1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주)씨스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2005-7호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관절에대한 기능성을 국내최초로 식약청인정



본 광고는 식약청산하 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관절 기능향상에 도움
염증 유발물질의 생성을 억제 하여 관절기능향상 및 개선에 도움
염증 유발과 관련된 물질의 생성이 인체시험에서 감소 되는 것을 확인
국내 7개 대학병원(다기관)에서 관절이 불편한 사람 54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인체시험을 실시한 결과 관절기능개선이 확인 되었습니다 (open study).[출처: 최신의학 2002년 2월호]
홍콩대학 퀸메리병원에서 관절이 불편한 사람 8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체시험을 실시 한 결과 위약대조군에 비해 리프리놀 섭취군에서 관절기능개선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약대조군 이중맹검인체시험)
[출처: Progress in Nutrition VOL.6, N.1, 17-31,2004]
*위 임상결과는 관절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리프리놀은 다른 약물이나 식품과 같이 드셔도 안전합니다.
본 제품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최신의학 등 관련 논문이나 책자를 참고하거나 저희 회사로 문의바랍니다.
www.syseshop.co.kr 문의 02-850-2525